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5호 【루계 제26089호】 주체107(2018)년 8월 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7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뜻깊은 7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수력발전부문에서

수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면서 전력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7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높이 세운 전력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과학적인 불판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적은 물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을 실천에 도입하여 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각지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허천강발전소의 로동계급은 효률높은 새 수차를 받아들여 지난 시기보다 많은 량의 전력을 증산하였다.

이들은 발전설비현대화를 다그치고 송배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같은 물량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다.

서두수발전소와 수풍발전소, 장진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교대법증산경쟁을 호소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장자강발전소와 강계청년발전소, 룡천발전소, 대동강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설비들의 관리운영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면서 매일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위원발전소와 남강발전소, 회천발전소를 비롯한 다른 수력발전소들의 로동계급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며 수력발전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8월 전력생산전투에서도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철도운수부문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철도운수부문의 로동계급이 7월 화물수송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대중을 증송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갔다.

성의 일군들은 현장부문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중요화물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평양철도국에서는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기관차와 화차들을 제때에 보장하고 집중수송을 책임적으로 조직해나갔다.

수송지휘일군들은 중요역들에 나가 물동확보정형과 집중수송렬차들의 운행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맞게 기관차, 화차들의 맞물림사업을 기동성있게 하였다.

서평양기관차대, 평양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은 기관차들을 책임적으로 수리정비하고 합리적인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여 집중수송렬차들의 운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개천철도국에서도 화물수송전투가 줄기차게 벌어졌다. 철도국의 사령원들은 렬차들의 움직임상태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앞선 지휘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구간별, 방향별로 집중수송렬차들을 제때에 련성하여 중요물동수송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국아래 여러 역과 객화차대들에서는 중요물동을 실은 렬차가 도착하면 제때에 검사하고 수리정비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 역에서의 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이였다.

함흥철도국과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중요화물수송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본사기자

림업부문에서

림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상반년에 이어 7월에도 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림업성의 일군들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보장과 장마철피해막이대책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사이나르기와 마감나르기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성과 각 도림업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은 계획수행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림산사업소와 갱목생산사업소들에 자주 내려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며 그들을 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자강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밀었다. 송원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준비를 면밀히 갖춘데 기초하여 산지조건에 맞는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7월 통나무생산에서 관리국적인 모범을 보이였다. 성간, 화평, 자성림산사업소와 동신, 강계갱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마감나르기에 동원된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여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평안남도림업관리국아래 덕천, 북창, 양덕, 신양갱목생산사업소와 평안북도림업관리국아래 벽동, 동창림산사업소들에서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대용연료에 의한 통나무운반비중을 훨씬 높이면서 마감나르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안변림산사업소와 천내갱목생산사업소의 로동자들은 물전기재들의 만가동보장에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여놓고 마감나르기에 박차를 가하여 7월 통나무계획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아래 도안, 장진림산사업소와 홍원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마감나르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본사기자 정경철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철강재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쉼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혁신의 소식이 전해졌다. 7월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수천t의 철강재를 생산하여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과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경제건설대진군으로 들끓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이 성과는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진군길에서 새로운 전설신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돌격전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요구되는 철강재를 제때에 보장해줄 확고한 결심과 각오를 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그들의 투쟁이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들끓는 생산현장들에 내려가 대중과 일도 함께 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고있다.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같은 열의로 하여 강철직장, 압연직장을 비롯한 여러 전투장들이 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강철직장의 용해공들은 철강재생산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고있다. 용해공들은 집단적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차지당 쇠물량을 늘이는 한편 용해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혜와 정열을 합쳐가고있다.

압연직장의 로동자들도 불굴의 투쟁정신을 만장약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압연강재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천실성있게 하고있다. 특히 로동자들의 자각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설비들의 능력을 최대로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자 혁신적인 투쟁을 벌려 가열로보수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을 줄기차게 내밀었다. 선재2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설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보수정비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실수률을 보다 끌어올릴수 있는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직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마음한뜻이 되여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7월중에 세웠던 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

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강선의 정신, 강선의 본때로 철강재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 그들은 주원료와 내화물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피끓는 심장을 내던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에 떠받들려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줄 철강재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호성

총공격전에로 고무추동하는 집중강연선전 활발

평안북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전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집중강연선전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전선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세대들처럼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게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내용을 반영한 정치사업자료를 가지고 집중강연선전을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도안의 모든 일터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더욱 들끓게 하고있다.

신도군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파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집중강연선전을 활발히 벌려 군안의 전투장들마다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전투장들에 나간 일군들은 신도군을 전국의 본보기로 더 잘 꾸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집중강연선전활동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개건현장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공장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없애고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신의주방직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도 현지지도파업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일군들의 집중강연선전활동이 힘있게 벌어져 전투장마다 용공격전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신의주마이싱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집중강연선전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집중강연선전활동은 도안의 협동벌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고온과 가물피해막이전투가 벌어지는데 맞게 정치사업자료를 실효성있게 만들어 도안의 시, 군당조직들에 내려보내주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정주시와 운전군, 룡천군과 염주군, 선천군과 녕변군, 구장군, 태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일군들과 직외강연강사들은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집중강연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온과 가물피해막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집중강연선전활동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용공격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힘있게 폭발시키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고온과 가물피해막이투쟁에 총동원, 총집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국심한 가물과 고온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있는 량강도와 평안남도에서 고온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량강도에서

량강도에서 고온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일군들은 매일 가물피해막이전투형을 료해하고 총화지으면서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혜산시안의 농촌들에서 가물피해막이전투가 전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오늘의 가물피해막이전투는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결사전을 벌리고있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각종 물전기재들과 관수설비들을 리용하여 물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있다.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가물피해를 막고 당면한 영농공정을 힘있게 추진시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의 열의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삼지연군에서도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 고온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거름, 일덧비로주기에 힘을 넣고있다.

김형직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가물과의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을 맡고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들은 가물피해를 많이 받고있는 압록강기슭의 포전들에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여러 협동농장들에 나간 일군들은 가물피해를 받을수 있거나 현재 가물을 타고있는 포전들을 빠짐없이 장악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대책을 세우고있다.

군안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자동차, 뜨락또르, 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군에서는 가물피해막이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적시 알은 포전들에 대한 물주기를 진행한데 이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삼수군과 풍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그들은 포전들에 달려나가 물주기를 하면서도 농작물비배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열의밑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애국적헌신성에 떠받들려 농장법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날이 갈수록 성과는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속되는 고온현상과 가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시, 군들에서 우물과, 급로, 흡짱들을 완전복구하고 보막이를 하는 한편 분무기들을 총동원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가물과 고온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는것을 급선무로 제기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특히 모든 시, 군들에서 우물과 급로, 흡짱들을 완전복구하고 보막이를 하여 고랑관수를 하게 하는 한편 현실에서 우월성이 증명된 영양액과 성장촉진제를 분무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있다.

숙천군에서 고온과 가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로동자, 사무원들과 가두녀맹원들이 떨쳐나 포전마다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여러가지 물대기방법을 받아들여 논벼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있다.

문덕군에서도 고온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서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는 사업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분발해나서고있다. 군적인 작전에 따라 많은 분무기가 농작물피해를 막는데 적극 리용되고있다. 군에서는 하천보막이를 하여 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또한 포전들에 영양액과 성장촉진제를 분무하여 농작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회창군에서는 군급일군들을 협동농장, 작업반들에 파견하는것과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 가물과는 면적을 분담하여 물주기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고있다. 협동농장들에 나간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발동발전기와 소형양수기들을 동원하여 포전들에 물을 대고있다.

신양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고온과 가물에 의한 피해를 막는것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관철전,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자각을 안고 가물피해를 받는 강냉이밭들에 물주기를 하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9월의 대축전장에 로력적성과를 안고 떳떳이 들어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고온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들쭉음료공장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삼지연군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삼지연군에서 들쭉음료공장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지난 4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옹벽공사와 저장고지하구조물공사 등을 결속한 기세로 공장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의 자랑은 들쭉입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들쭉음료공장을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신현전공장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된 삼지연군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음료공장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군들은 공장건설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창업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면서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을 다그치도록 하고있다.

돌격대에서는 북부지대의 특성에 맞는 건설공법들을 도입하면서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돌격대원들은 흔석과 불로크, 모래 등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따라세우고있다.

선행공정인 철근가공 및 조립과 휘틀제작을 맡은 기술중대의 전투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1, 2, 3대대의 돌격대원들도 치렬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공사에 어려가지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4, 5, 6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이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공사의 질과 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은 건설자재수송을 맡아나섰으며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많은 설비, 자재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들쭉음료공장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객차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전력공업발전의 길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

지난 7월 중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땅 북변에 자리잡고 있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은 날이 갈수록 천만 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력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몸소 험한 산발을 헤치시고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력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며 심장과도 같다고,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전당적으로, 전국가적으로 힘을 넣어 해제끼야 한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절세위인의 위대한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력공업부문에서 새로운 기적창조의 열풍이 일고있다.

《모든 힘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로!》

위대한 우리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전력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비상한 각오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전력생산기지마다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이 펼쳐지고있으며 그 드세찬 열기속에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오늘의 가슴벅찬 현실앞에서 우리 천만군민은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자립적동력공업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립적동력기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있는 부강조국건설의 귀중한 밑천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자립적동력기지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의 전력공업은 과연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걸어온 발전의 력사는 또 얼마나 자랑차고 영광스러운것인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2(1943)년 9월 중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앞에서 하신 연설을 격정속에 되새겨보군 한다.

우리 나라에는 전력자원 특히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나라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개마고원을 비롯한 북부지대에는 수백만kW의 전기를 낼수 있는 수력자원이 있다. 개마고원, 부전고원에서 동해쪽으로 물을 넘기면 락차가 크기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좋다. 우리가 장차 수력자원을 잘 동원리용한다면 적어도 수백만kW이상의 발전능력을 조성할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전기가 풍부한 나라로 될것이다.

일제와의 피어린 결전이 벌어지던 그때 벌써 천리해안의 예지로 해방된 조국의 래일을 확신성있게 내다보시고 전력공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전기는 산업의 동력이다. 전기가 없이는 산업을 복구운영할수 없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없다.

이렇듯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건국의 초행길에서 전기생산을 민족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것이다.

전기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찾고찾으시여 일제가 파괴한 발전소와 전기시설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도록 크나큰 신심과 용기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전력공업발전의 새 력사가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문제로만 여기지 않으시였다.

해방후 우리 공화국의 국장제정사업이 진행되던 때였다.

우리 혁명대오에 끼여들었던 일부 불순분자들은 국장에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왕궁인 경복궁을 그려넣어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국장제정사업을 음으로양으로 방해해나섰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장차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된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전변될 휘황한 전망을 보여주자면 국장에 우리 조국의 전기화문제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의 귀중한 로력이 깃든 세계굴지의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런것을 잘 그리면 나라의 전기화전망을 직관적으로 표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되여 우리 공화국의 국장에는 위력한 공업강국으로 전변될 휘황한 전망을 반영하여 수력발전소와 송전탑이 새겨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이 집약되여있는 우리의 국장, 정녕 이것이야말로 전력문제를 부강조국건설의 승패와 후손만대의 륭성번영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제적요인으로 통찰하신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선견지명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그 준엄한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을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주체41(1952)년 4월 몸소 백송리를 찾으시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는 나라의 공업화와 전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전력공업을 급속히 복구발전시키는것을 전후 전반적인민경제복구건설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령도는 또 얼마나 현명한것인가.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는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분, 때로는 일군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기초공식에만 매달려있던 그들에게 발전소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명안도 깨우쳐주시고 때로는 머나먼 심심산골의 발전소에까지 찾아오시여 희망찬 앞날을 그려주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나라의 전력공업을 발전시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굳건히 담보하실 일념이 얼마나 불같으시였으면 우리 수령님 몸소 높고 험한 령에까지 오르시며 발전소언제건설위치까지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진행하신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도 전력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간곡히 교시하시였으랴.

우리 수령님께서 끝없이 바치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 그이께서 걷고 걸으신 헌신의 자욱이 있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대동강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의 화력 및 수력발전소들이 장엄히 일떠서고 중소형발전소들이 이 땅에 수풀처럼 솟아나는 빛나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주체조선의 자랑찬 전력공업의 위대한 개척자, 그 튼튼한 토대로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굳건히 담보해주신 걸출한 위인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전력공업은 보다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라고 하시며 나라의 전력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중소규력증산의 효과적인 방도이다》, 《발전소관리운영을 잘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전력증산을 위한 불멸의 지침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지금으로부터 20년전 1월 자강땅에 새겨진 이야기가 숭엄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되새겨진다.

날씨가 좋은 때 찾으시여도 되시련만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북방의 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그런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초강도강행군으로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들을 찾고 또 찾으시였던가.

크고작은 강하천들에 각이한 형태로 건설된 발전소들과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난방화를 실현한 새 주택들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정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자강도에서 지난날 쓸모없이 흘려보내던 크고작은 강하천들에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여러가지 형태의 중소형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여 동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였을뿐아니라 주택난방을 비롯한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고있다고, 자강도에 펼쳐진 이 자랑찬 현실은 일찌기 대규모발전소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고.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때에 어떻게 하면 긴장한 전력문제를 빨리 풀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기로 결심하고 자강도가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데서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을 단순히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이며 그이의 숭고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새로 일떠선 발전소를 찾고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의 이 자랑찬 현실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수령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였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고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시는 길로 발전소건설장들을 먼저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혜성강청년2호발전소를 찾으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오고 희천발전소에 들려보면 발전소건설자들이야말로 말로써가 아니라 육탄으로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해나가는 화선용사들이며 사회주의강국승리의 새날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제일기수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천만의 심장은 세차게 높뛴다.

대소한의 눈보라와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들을 쉬임없이 찾고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그 길우에 새겨진 하많은 가슴뜨거운 혁명일화들을 우리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불편하신 몸으로 발전소건설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전력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전력공업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정녕 나라의 방방곡곡에 수많이 일떠선 자립적동력기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어려있는 부강조국건설의 귀중한 밑천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들께서 다져주신 전력공업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이 땅에 경제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신 그날 이곳으로 오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그처럼 불편하신 몸으로 외국방문을 마치시는 길로 천사만사가 기다리는 국사를 뒤로 미루시고 발전소건설장부터 먼저 찾아오시였겠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였다고 하시였고 원산군민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는 발전소의 대인공호수에 출렁이는 푸른 물은 강원도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샘줄기로 영원히 뜨겁게 흘러들것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신것이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력발전소건설력사의 기성관례를 깨뜨리며 백두산아래에서 영웅신화를 창조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어랑천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끝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함경북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력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서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마련된 우리 나라의 전력공업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여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인 사회주의강국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오실 그이의 철석의 의지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전력공업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전력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며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으로 당을 옹위하자!》

이 전투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전력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려는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신심과 혁명적열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앙양되여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며 이 땅에는 경제강국건설의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터져오를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가슴깊이 새겨간다.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삼복철이 전하는 이야기들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주체101(2012)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완공단계에 이른 류경원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류경원의 외부를 보시면서 류경원을 비롯한 최근에 일떠서고있는 건축물들이 다양하고 특색있다고 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데서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휴식홀에 들어서시여서는 넓은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가를 물어주시며 이곳을 리용하는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이르시고 화끈하게 말아오른 건식한증칸, 습식한증칸, 소나무한증칸에도 몸소 들어가보시며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청량음료점에 들리시여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제기되는것이 없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걸린 문제가 있으면 자신께서 풀어주겠다고 온정어린 말씀을 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없다는 자각을 안고 완공되는 날까지 잔손질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쉼임없이 이어가시는 헌신의 길우에 빛나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다.

끝없는 헌신의 세계

주체102(2013)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은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말타기에 편리하게 잔디 및 토사주로를 잘 닦으며 실내승마훈련장에 톱밥같은것을 두툼하게 깔아주어야 한다고 이르시고 야외에 원형승마훈련장을 더 건설하고 토사주로에서 말을 달릴 때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승마주로 곳곳에 사람들이 말에서 쉽게 오르내릴수 있는 시설물들도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입입이 일깨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시간이 흐르는 속에 어느덧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은 땀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자욱을 계속 이어가시며 미림승마구락부를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찌는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그해의 무더운 여름철에만도 우리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곳은 그 얼마나 많은가.

문수물놀이장건설장과 평양체육관개건공사장, 마식령스키장건설장…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새겨가시는 끝없는 자욱마다에 그렇듯 아낌없이 뿌리신 헌신의 땀방울들이 그대로 인민의 기쁨의 웃음꽃, 행복의 웃음꽃으로 활짝 피여나 이 땅에 차넘치고있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장정철

혁명적인 일본새—전개력

알찬 열매를 맺도록 능란하게 사업을 조직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세련된 수완인 혁명적전개력.

당의 방침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전개력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당과 혁명에 필요한 진짜배기 일군이 되자면 맡겨진 혁명임무를 천만히 수행할수 있는 혁명적전개력을 소유한 비상한 실력가, 능동적인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일욕심이 많고 전개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의 의도에 민감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며 걸린 고리를 솜씨있게 풀어나가는 혁명적전개력,

이런 자질을 갖춘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된 완벽한 일군들을 요구하는것이 오늘의 벅찬 현실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자신을 부단히 세련시키고 준비시켜 당에서 한가지 과업을 주면 열, 백가지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계적인 인간이 되여가지고서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할수 없다고, 사업을 책임질줄도 알아야 하지만 조직하고 전개할줄도 알아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심분투할것을 요구하시는 간곡한 당부이고 당에서 벽을 올리면 강산을 올리기를 바라시는 높은 기대가 어린 가르치심이다.

당에서 벽을 올리는 의도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강산을 들었다놓을 통이 큰 작전으로 일판을 벌리고 부닥치는 난관을 완강하게 뚫고나가는 담이 크고 전개력있는 일군,

바로 이런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신 일군이다.

일군의 혁명적전개력을 담보하는 근본원천은 당에 대한 충정심이다.

충정의 열정으로 불타면 없던 재간도 생기고 모르는것도 알게 되며 따라서 제기되는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였다.

원산시에서 시안의 도로를 포장할 방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의 일이다. 어디서나 요구하는 세멘트가 제일 긴장한 문제였다. 도당책임일군은 천내리세멘트공장의 생산을 적극 떠밀어주어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결과 온 도가 달라붙어 도로포장공사를 빨리 해제낄수 있었다.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그런 식으로 일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애국심도 생기고 전개력도 나오기마련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높은 정치실무수준과 실력은 일군들로 하여금 혁명적전개력으로 일하도록 추동해주는 원동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치실무수준이 낮고 실력이 없으면 당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할수 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정치실무수준이 높지 못하고 실력이 약하면 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며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가 아니라 되말아넘기는 식으로 앞이 막막하게 된다.

때문에 일군들은 혁명적전개력을 제발시켜주는 창조적능력인 실력을 끊임없이 련마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전개력과 배치되는 소심성은 보신주의와 패배주의를 낳게 하는 온상으로서 일군들이 반드시 경계하여야 할 옳지 못한 태도이다.

언제인가 일부 일군들속에서 소심성에 사로잡혀 우물쭈물하면서 일을 대담하게 전개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일하는 과정에 걸린 문제를 자체로 풀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이 걸렸소, 저것이 걸렸소 하면서 조건타발을 하며 자기가 맡아보는 사업이 잘되지 않고있는것도 남에게 책임을 넘겨씌우려고 하는 현상을 엄격히 경계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일을 하느라면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소심성에 사로잡혀 주저하거나 동요하는것은 혁명을 저애하는 행위이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며 하나에서 열백까지 일을 응당 자기가 맡아안으며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창발적으로 일을 조직전개하고 담벽을 밀고나가라고 하면 밀고나가 끝끝내 돌파구를 여는 일군,

바로 이런 일군이라야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할수 있다.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는데서 로씨현상은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런 경향을 지적하시는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청춘의 기백과 열정에 불타야 하며 왕성한 투지와 사업의욕에 차넘쳐야 하며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대담한 전개력을 지녀야 한다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당은 언제나 젊고 힘이 약동하며 어떤 난관과 풍파도 뚫고 용기백배하여 새로운 승리에로 끊임없이 전진하게 될것이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항상 높은 목표를 내걸고 사업을 통이 크게 조직하며 일단 포치한 사업은 완강한 혁명적전개력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우리 일군들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나 이런 일본새를 취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량순

고귀한 지침, 다심한 손길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놀랍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밤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들.

언제나 격동하는 시대와 호흡을 함께 하는 이런 미더운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인민의 요구와 의사가 구현된 현실이 꽃펴나기마련이다.

우리 일군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풀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수십년전 6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의 사무실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늘 사무실에서 맴돌면서 자료종합과 사업포치, 문건작성으로 바삐 보내던 그 일군은 그날도 종일 전화에만 매달려있었다.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계셨던것이다.

어서 앉아서 일을 보라고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책상우에 쌓여있는 문건들을 목목히 바라보시며 그 일군에게 순안목이나 삼석목으로 한번 나가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나가본적이 없다고 말씀올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번 나가볼걸 그랬다고, 요즘 버스도 타기 힘들고 기차타기도 힘들며 식당들에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하기도 힘들다는 반영이 있는데 이렇게 전화나 하고 문건들이나 뒤져서야 실태를 알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잘 알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상 요구를 제때에 풀어줄수 있다. 우리 당의 중요한 사명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제때에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자면 먼저 인민대중의 요구와 애로가 무엇인가를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당일군들이 군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새겨안는 일군의 충격은 실로 컸다.

현실과 멀리 떨어져 문서와 전화에만 매달리면서 사무실에서 맴돌면 자신의 그릇된 사업태도는 얼마나 한심한것인가.

그러한 그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당일군들이 모범을 보이면 아래일군들도 본받을것이라고, 군중속으로 들어가는데서 모범을 보이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일군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의 결의를 말씀올리였다.

그후 일군은 군중속에 들어가 진지하게 사업하는 과정에 버스와 렬차, 식당문제뿐아니라 수도에 유원지도 부족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사무실에서나 맴돌아서는 도저히 알수 없는 문제였다.

그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야 동무들이 군중관점이 선것 같다고, 군중들의 그런 목소리는 사무실에 앉아서는 들을수가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청년공원이나 대성산유원지를 꾸렸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식당도 부족하며 렬차나 버스도 긴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 일군들에게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없다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인민들이 옳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중속으로 들어갑시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일관된 그이의 가르치심은 일군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였다.

군중속으로 들어가자!

정녕 이것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였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일군들을 어머니당의 참된 일군들로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어 오늘도 우리 일군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며 헌신적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것이다.

본사기자 채히성

고온과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자연개조정책의 생활력 힘있게 과시

대동강류역의 갑문들과 언제들이 은을 낸다

고온과 가물이 극심해지고있는 지금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대동강과 그 지류에 건설된 갑문들과 언제들이 자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갑문들과 언제들은 고온과 가물속에서도 대동강류역의 드넓은 농경지들을 적시며 늘어나는 생활용수와 대동강류역의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동강큰물지휘부의 과학적이며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특해운성과 련관단위들에서는 서해갑문을 비롯한 대동강류역의 계단식갑문들과 언제들의 수위를 최대로 높이는데 힘을 넣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들에 언제와 갑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건설하고 자연흐름식물길을 비롯한 관개수로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면 큰물과 가물피해를 막고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전기도 생산하고 양어도 하고 풍치도 돋굴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의 영웅적군대와 인민은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인 갑문들과 언제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대동강과 그 지류를 따라가면서 계단식으로 비림갑문, 봉화갑문, 순천갑문, 대동강발전소 등을 일떠세우고 남바다를 가로막아 서해갑문을 건설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였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수놓아진 년대에 이어 새 세기에는 대동강상류에 녕원발전소언제와 대각청년언제까지 훌륭히 일떠세워 평양시와 대동강류역의 넓은 지역을 큰물피해와 가물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지금 고온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있다. 기상수문국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고온현상이 20여일째 계속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상기후현상에 대처할수 있는 저수능력이 큰 발전소언제들과 계단식갑문들이 없다면 대동강류역의 넓은 농경지가 혹심한 가물피해를 받거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보장에서 막대한 후과가 초래될것이다. 하지만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대동강과 그 지류에 일떠선 만년대계의 갑문들과 발전소언제들이 있기에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물원천저장을 크게 모르게 되였다.

지금 대동강큰물지휘부에서는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과학적인 기상예보자료에 따라 갑문들과 언제들의 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그리하여 고온과 가물피해가 더 지속된다 해도 끄떡없이 관개용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

지금 대동강을 따라 계단식으로 건설된 갑문들과 발전소언제들에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여있다.

기상수문국과 전력, 체신, 농업성, 과학연구부문의 일군들과 연구사들로 강력하게 꾸려진 큰물지휘부에서는 각지 갑문들과 언제들에서 측정되여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수위자료와 기상예보를 과학적으로 분석종합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기상수문국에서는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조건을 주시하면서 각지 관측소들의 역할을 높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제때에 분석하여 해당 부문들에 정확한 자료들을 통보하고있다.

전력공업, 체신부문에서도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수문작업과 지휘통신보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보장대책을 2중, 3중으로 따라세우고있다. 특히 이곳 일군들은 현지에서 만단의 조건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걸린 문제들을 신속히 대책해나가고있다.

대동강의 갑문들과 발전소언제를 지켜선 각지 근로자들은 수문과 권양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여 가물철에는 한방울의 물도 허실되지 않도록 하면서 전력생산을 늘이고 일단 장마철이 다시 시작되면 제때에 물을 놓아줄수 있게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해당 단위에서는 고온현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대각청년언제의 수위가 최대로 보장되도록 하여 개천-태성호물길을 따라 농경지로 흘러드는 물량이 지난 시기보다 대폭 늘어나도록 하고있다. 그밖의 계단식갑문들과 언제들도 가물피해를 막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강하천들에 언제와 갑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건설하고 자연흐름식물길을 비롯한 관개수로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여 큰물과 가물피해를 막고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이 각지에서 지금 뚜렷이 증명되고있다. 대동강과 그 지류를 다스려 가물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는 헌신을 목격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자연개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지체험으로 가슴뜨겁게 느끼며 당의 령도따라 9월의 대축전을 커다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전 성 삼

전력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평양시송배전부에서

평양시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고온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특히 송배전선로들과 전력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예견성있게 진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설비를 제때에 점검보수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양시송배전부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수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책임일군들은 각 구역, 군송배전소들에 자주 나가 전력설비들과 선로들의 상태, 전력공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운영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력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사업과 송배전선로들에 대한 순회점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선로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송배전선로들의 차집현상에 의한 사고요소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철저히 감시하고 불미한 점들을 즉시 퇴치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들에 대한 순회점검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또한 여러 변전소들의 주변압기들에 자동온도조종장치들을 설치하고 어느 한 변전소의 주변압기의 랭각장치에 대한 보수도 제때에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운영을 보다 과학화하여 주변압기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있다.

금전부문의 일군들은 통합전력판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금전조직과 지휘를 보다 개선해나가고있다. 이들은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선로들에서 파부하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하분배도 합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각 구역, 군송배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전력공급을 직접 담당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대성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 송배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구역내의 모든 배전선로들과 전력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자그마한 사고요소도 미연에 방지해나가고있다. 주변압기들의 랭각장치들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배전선로들에 대한 순회점검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무더위로 하여 수도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지구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을 보다 짜고드는것과 함께 먹는물을 비롯한 생활용수와 공장, 기업소들의 공업용수를 보장하고있는 양수장들에 전력을 무조건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도 세워나가고있다.

여러 구역의 송배전소들에서도 농장들의 양수장들에 전력을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집중하고있다.

배전선로들에 대한 점검과 보수정비를 깐지게 하고 배전계통도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논과 밭들에 제때에 물을 대줄수 있도록 하고있다.

지금 송배전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불리한 조건에서도 전력공급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최 영 조

물보장에 력량을 집중

평원군에서

평원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온과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1일 하루동안에만도 군적으로 1만여명의 로력과 많은 소형양수기, 뜨락또르, 달구지들이 동원되여 고온과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벼수십정보의 농경지에 물을 대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군책임일군들은 고온과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청룡, 매전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고온,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고온과 가물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있는 포전들에 소형양수기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물주기전투를 벌리고있다.

월일, 삼봉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물운반수단들이 부족한 조건에서 뜨락또르와 달구지들에 물랑크를 올려놓고 물차로 리용하고있으며 물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진행하여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물보장에 동원된 뜨락또르운전수들은 고온, 가물과의 전투에서 자기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물운반회수를 보다 늘이기 위해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군에서는 대종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땅속물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갔다.

운룡, 운룡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이미 있는 우물과 줄짱, 물주머니 등을 원상복구하고 물운반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남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한몸이 그대로 물줄기가 되여서라도 사회주의전야를 더 푸르게 가꾸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물이 흐르는 곳들에 보막이를 하면서 물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있다.

군량정사업소와 군관개관리소를 비롯한 군급기관,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근로자들과 녀맹원들도 주타격전방을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고온,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섰다. 특히 삼봉협동농장에 달려나간 군량정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물주기를 전투적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가물과의 전투에 산악같이 일떠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에 의하여 군적으로 단하루동안에 가물을 타던 백수십정보의 농경지들에 대한 물주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물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군적으로 수백개의 우물과 굴포, 줄짱, 저수지 등이 고온과 가물피해막이에 효과적으로 리용되였다.

고온, 가물피해막이전투를 당정책관철전으로 간주하고 떨쳐나선 이들은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한마음한뜻이 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정 성 일

가물피해를 많이 받고있는 포전들에 대한 집중적인 물주기전투를 벌리고있다.
—황주군 삼정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그 어떤 고온에도 끄떡없게

서흥철길대에서

서흥철길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고온에 의한 철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철길대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고온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철길구간을 일일이 밟아보면서 철길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철길보수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철길중대, 철길소대를 맡고 내려간 대의 일군들은 고온으로 하여 철길에서 나타날수 있는 이상현상과 그것을 막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철길원들과 토론하면서 철길보수작업에서 제기되는 자재보장을 앞세워나가고있다.

철길이 고온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견성있는 대책을 세우는것이 증송성과와 잇닿아있다는것을 명심한 각 중대, 소대의 철길원들은 철길관리와 보수작업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지난 기간 철길보수에서 모범을 보인 서흥철길중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이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에서 집단적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중대에서는 철길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능력에 맞게 작업조직을 면밀히 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열의를 높여주어 철길보수에서 높은 실적이 기록되게 하고있다.

금천철길중대에서는 맡은 철길구간의 높름바로잡기를 비롯한 해당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철길원들은 모두가 어려운 모퉁이마다에 서로 어깨를 들이밀며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여 매일 제 최보다 많은 철길을 예견성있게 보수하고있다.

개성철길중대의 일군들과 철길원들도 철길구간의 위험개소들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여러가지 공구와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해가지고 철길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평산철길중대 일군들과 철길원들도 다른 중대들에 뒤질세라 높름바로잡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들은 작업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단위시간에 최대의 마력을 내여 렬차들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면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기공소대의 전투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헌신적인 투쟁으로 여러가지 기공구들과 철길교착품들을 만들어 철길중대들에 보내주고있다. 이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합리적인 지구들을 받아들이고 설비들을 보충갱신하여 철길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튼튼히 갖추어나가고있다.

철길대에서는 철길순회를 종전보다 더 긴장하게 짜고들어 담당구간의 철길상태에 대하여 항상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위험개소들을 앞질러가며 퇴치하고있다.

서흥철길대 일군들과 철길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들이 맡은 구간에서는 고온현상으로부터 나타날수 있는 철길피해막이대책이 적극적으로 취해지고 증송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과학적인 물관리방법으로

양어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

전국의 양어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근 계속되는 불리한 날씨조건에 맞게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못들을 물고기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맞게 배치하고 물고기기르기에서 물온도와 산소보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산성 양어지도국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각 도들에 나가있는 지도국의 일군들과 수시로 련계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는 한편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각지에 나가있는 지도국의 일군들은 해당 지역 당 및 경제지도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찾아 실천에 구현하고있다.

각지 메기공장들과 양어 및 종어사업소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을 담당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새기고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평양메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고온피해막이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일군들은 사양공들이 물고기들의 생육상태와 물온도관찰을 보다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사소한 문제점도 제때에 발견하고 즉시에 퇴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또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물재순환체계와 소독약생산공정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사양공들은 질좋은 사료를 보장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물고기들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환수대책을 바로 세우면서 사름률을 높여나가고있다.

순천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고온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이들은 아외못들에 수생식물을 띄워주고 차광막들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물온도상승을 막는것과 함께 아외못들에 대한 소독도 책임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또한 물원천확보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자연의 횡포와 인간의 의지와의 대결전은 각지의 양어장들에서도 벌어지고있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 양어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있을수 있는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양수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아외못들에 언제나 질좋은 물이 충분히 흘러들도록 하고 수생식물을 띄워주어 물온도를 낮추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사양공들의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도 큰 힘을 넣어 사양관리를 보다 과학화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은 물고기생산성과로 받들어나가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양어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정에 의하여 고온피해막이성과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논물관리공들의 역할을 높여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에서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에서 고온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일군들은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나가 농장원들에게 고온피해를 철저히 막을데 대한 당의 요구를 깊이 해설해주면서 주인된 자각을 안고 논벼비배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도록 그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포전들을 맡아보면서 지대적, 포전별특성에 맞는 고온피해막이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높은 온도가 지속되는 조건에 맞게 당면한 논벼비배관리에서 논물관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일군들은 논물관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전습을 자주 진행하여 그들이 수시로 변화되는 정황에 대처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있다. 또한 논물관리공들과 함께 논두렁을 밟아가면서 논물관리에서 사소한 전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작업반기술원들의 노력도 은을 내고있다. 변화되는 일기조건과 논벼의 생육상태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며 논물관리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앞세우는 그들의 뒤를 따라 모든 논물관리공들이 맡은 일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논물관리공들은 과학적인 논물관리는 고온피해를 극복하고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는것을 명심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논물관리를 진행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낮에 더워진 물은 저녁에 빼버려 밤사이 랭수온도를 떨구거나 흐름식물대기를 하여 논물온도를 낮추어 논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또한 논농사는 물농사이자 뿌리농사라는것을 명심하고 뿌리가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물대기방법을 적극 활용해나가고있다. 농장원들도 고온피해를 철저히 막아 땀흘려 심고 가꾸어온 농작물들이 알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인다운 일본새를 발휘하고있다.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에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한 자랑안고 떳떳이 들어설 일념으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작물비배관리를 더욱 알심있게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방 영 진

생육이 왕성해지게 영양관리에 힘을 넣어

와우도구역 대대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고온과 가물피해막이로 들끓고있는 와우도구역 대대남새전문협동농장의 포전들에 가면 류다른 풍경을 볼수 있다. 그 어느 작업반에서나 초급일군들부터 배낭식분무기를 메고 잎덧비료주기를 하고있는 땀에 젖은 모습들이다.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정성을 다해 씨를 뿌리고 모를 내고 땀흘리며 가꿔온 벼포기들이 고온피해를 받지 않게 하여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불타는 열의가 비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농장에서는 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의 긴급협의회를 열었다.

고온과 가물이 지속되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농작물비배관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짜고들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시된 문제가 농작물에 대한 잎덧비료주기였다.

고온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의 숨쉬기와 빛합성작용, 빛합성산물의 이동과 축적, 영양원소들의 흡수 등 전반적인 물질대사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논벼의 천알질량이 떨어지게 되며 이것은 정보당 수확고가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방도는 무엇인가.

김영옥관리위원장과 리정호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은 잎덧비료주기방법에서 그 방도를 찾았다.

일반적으로 논벼의 생육후반기에는 로화현상에 의하여 뿌리활성이 떨어져 영양물질흡수능력이 낮아진다. 하지만 잎덧비료주기는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체내에 직접적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이기때문에 농작물의 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다.

농장의 일군들은 잎덧비료주기방법으로 고온피해를 극복하도록 하는것을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의 중요항목으로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주변지역에 흔한 질석을 리용하여 다원소광물질비료를 자체의 힘으로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지난 시기 이 비료를 자체로 생산하여 논벼농사에 받아들여본 결과 질소, 린, 카리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많은 미량원소들이 균형적으로 흡수되여 효과적이였다.

농장에서는 또한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림형일기사장은 자기의 책임감을 무겁게 자각하고 앞장에서 뛰였다.

작업반장들과 기술원들의 담당포전을 시험포전으로 정해놓고 열흘에 한번씩 진행하고있는 보여주기사업이 큰 은을 내였다. 이것은 초급일군들이 과학농사의 앞장에 서도록 하는데서 좋았다.

보여주기사업에서 놓치지 않고 강조된 문제는 잎덧비료주는 시간을 저녁으로 정하고 모두가 총동원되여 단위시간동안에 능률을 최대로 높이게 하는 문제였다.

당의 과학농사방침관철에 자기의 지혜를 깡그리 바쳐갈 일념안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포농업대학의 연구사 김영국동무도 늘 포전에서 초급일군들과 함께 땀흘리며 제기되는 문제해결에 자기의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모든 농장원들은 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여 고온과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이 되여 깐진 일솜씨를 발휘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드높은 목표밑에 과학농사의 힘으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극복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 영 진

고온과 가물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워가고있다.
—온천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6)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승리자의 영예를 떨친 정신력의 강자들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놓은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더듬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주체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 자부심을 안고 공화국의 70년력사를 돌이켜보는 천만군민의 추억속에 20세기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와 새 세기 첫 10년대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떠오른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어떤 정신력의 강자들인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였다.

높이 들자 붉은기

주체84(1995)년 9월 30일부 《로동신문》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작완성된 기념비적명작인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가 소개되였다. 우리 당의 붉은기철학이 반영된 시대의 명곡을 받아안은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환희로 고동쳤다.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여있다
…

천만뜻밖의 민족대국상이후 수령영생의 성스러운 력사를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의 박동을 그대로 담으며 내 조국의 하늘가에 메아리친 이 노래는 우리 인민에게 불사신의 힘과 의지를 백배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일해나아가자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의 호소를 피끓는 가슴에 새긴 천만군민이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이 기발 들고서 당을 받들고 이 기발 지키며 내 조국 빛내리라고 웨치며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대동강반의 문수지구에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전하는 당창건기념탑을 웅장하게 일떠세웠고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신념의 노래높이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 평양-향산관광도로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보란듯이 건설하였다.

붉은기에 대한 노래와 더불어 온 나라에 고난의 행군정신이 세차게 나래쳤다.

거리거리에 나붙은 총진군의 구호에도 붉은기, 공장구내와 포전들에 흘러퍼지는 장엄한 노래도 붉은기의 노래, 청춘의 열정 넘치는 건설장들에 펄펄 휘날리는 기발도 붉은기, 온 나라가 붉은기로 물들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붉은기를 지켜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영원한 주인이 되기 위하여 전체 군대와 인민이 고난의 행군길에 분연히 떨쳐나섰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의 붉은기를 추켜들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하여 대자연개조공사를 빛나게 완공하였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은 그 간고성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어려운 공사였다.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이것은 불길굴공사완공의 그날까지 군인들의 심장을 뜨겁게 틀어잡고 그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킨 신념의 금발이였다. 여기에는 당과 수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어려있었다.

천연바위를 뚫으며 엄마간 전진하면 강줄기같은 물이 터져 삽시에 갱을 메웠고 붕락구간이 너무도 많아 한m를 전진하는데도 숱한 시간과 로력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군인들은 조금도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난관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더욱 신심에 넘쳐 《높이 들자 붉은기》의 노래를 부르며 과감한 전투를 벌려 불길굴을 한치한치 열어나갔다.

그들은 갱이 물에 잠기면 떼목을 무어 그우에서 착암기를 돌리였고 광차를 미는것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어깨에도 동발목을 메고 막장길을 달렸으며 앞선 전우가 쓰러지면 다음 전우가 그 자리를 메꾸며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여기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오직 명령수행밖에 몰랐다.

어느 한 사갱에서 굴진전투를 벌리던 때였다. 25m의 구간이 붕락되는 뜻밖의 정황이 발생하여 27명의 군인들이 갱막장에 갇히게 되였다. 비상대책을 세운다 해도 이틀은 실히 걸려야 막힌 갱을 열수 있었다. 막장에 갇힌 군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배관으로 압축공기를 쉬임없이 쏴주면서 무너져내린 버력을 실어냈다. 하루가 지나갔다. 막장의 군인들에게 음식을 넣어주어야 했다. 지휘관들은 배관을 자르고 그 관으로 음식을 넣어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배관으로 메칠소리가 들려오고 뒤따라 구분대장의 웨침이 울려나왔다.

《먹는것보다 굴진을 계속할수 있게 압축공기를 보내달라.》

그대로 쓰러질수도 있는 생사기로에서 오직 명령만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암벽을 밀고나간 군인들이였다.

사정없이 밀려드는 물이 키를 넘자 하천의 배를 땅속으로 끌어들여 떼와 떼목우에서 착암기를 돌린 《락동강도하전투》, 철야전투지휘로 지칠대로 지치고 목까지 쉬여 더는 말을 할수 없게 되자 천을 찢어 거기에 《월미도의 3일처럼 싸우자!》는 격동적인 선동의 글을 써서 전투지휘를 계속했다는 한 정치위원에 대한 이야기, 장중한 군악이 울리는 속에 당기와 군기, 축기와 돌격대기발을 날리며 철갑대오인양 광차들이 나가고 착암기를 총창처럼 비껴들고 손에손에 채찍을 추켜든 각 구분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간데 이어 지원지대오와 군인가족대렬이 만세의 환호를 쩡쩡 울리며 급이처간 《막장대열병식》에 대한 이야기…

최고사령관의 명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결사관철해야 한다는것이 군인건설자들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였다.

수십m두께의 천정이 삽시에 무너앉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비키라!》 하고 웨치며 동지들을 구원하고 공사의 진격로를 열기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내던진 전사 그리고 가까스로 힘을 모아 한 전우의 손에는 《완》자를 쓰고 또 한 전우의 손에는 《공》자를 써서 승전의 보고를 부탁한 전사.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는 이런 영웅적인 소행의 주인공들을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었고 듣는 이야기마다가 감동의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이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체질화한 인민군군인들은 안변청년발전소 제2계단건설에서도 백절불굴의 군인본때,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영웅적투쟁자욱이 어려있는 불길굴을 돌아보시면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혁명적군인정신은 무적필승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원천으로 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심장속에 간직한 자강도인민들은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이 되였다.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우리 인민은 겹쌓인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공장을 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해질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도 그러한 것의 마지막잠재를 완전히 쓸어버린 강원도와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의 세기적변혁도 우리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으로 이룩하였다.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씩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혁명적열정과 투지가 그대로 살아 고동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

우리 당의 붉은기정신은 군대도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만들었고 인민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억척같이 세워주신 붉은기신념과 의지가 있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한길로 번함없이 나아갈것이며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성새로 우뚝 솟아 빛날것이라는것을 더 굳게 확신하게 한 잊을수 없는 고난의 행군이였다.

새 세기의 진격로를 따라

20세기 령마루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지난 력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갈 길을 내다보며 총진격의 신들메를 든든히 조여맨 우리 인민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평양-남포고속도로(당시)건설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산을 허물고 등짐으로 로반을 쌓아 조선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랑강도청년들은 《백두산이 지켜본다.》고 웨치며 백두의 산악을 강행군하는 정신으로 일했고 자강도청년들은 강계정신을 창조한 자강도사람들이 어떻게 불사신처럼 싸우는가를 보여주자며 억척같이 일했다.

1만 5천여리, 이것은 자동차주행거리가 아니라 건설장의 한 청년이 로반공사때 흙마대를 메고 달린 거리이다. 그 토량은 대형화물차 100여차분이나 된다. 5천여m의 굴뚫기, 착암기로 뚫었대도 감탄할 이 수자는 평안북도청년돌격대의 청년들이 손전히 정대와 함마로 한치한치 암반을 뜯어내며 뚫은 발파굴길이이다.

정대를 쥔 손이 함마에 맞아 피가 흘러내렸어도 붕대를 감는 시간이 아까와 참고 내색을 하지 않아 정대구멍에서 돌가루를 파내자고 하니 기기에 피가 질벅히 고여있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수 있었다.

흙마대를 멘채 쓰러졌다가도 《마대야, 빨리 가자. 아버지장군님을 모실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며 안타까운 눈물속에 한치한치 끌고가던 한 나어린 처녀의 모습은 적후천리 밀림속을 헤쳐 최고사령부로 찾아가던 화선간호원의 모습그대로였다.

청년건설자들은 태성호제방에서 5만명대합창이라는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희한한 장관도 펼치였다.

말로만 청년들을 내세워준다고 할것이 아니라 실지로 내세워야 한다고, 평양-남포고속도로를 건설한것을 기념하여 기념탑을 세우는것이 좋다고, 기념탑에는 반드시 청년이라는 글자를 넣어 붙여 우리 청년들이 당의 부름을 받들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방대한 고속도로를 건설한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고속도로입구에 그 위치도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크나큰 그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대기념비적청춘로반을 완공하고 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릴수 있었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에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은 물길굴뚫기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도정굴진을 진행하던중 두개의 발파화약이 터지지 않았을 때였다. 발파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 모두가 안타까와 가슴을 태우고있을 때 한 병사가 쏜살같이 막장으로 뛰여들어갔다. 제대명령을 받은 병사였다. 그가 불발요소를 제거하는 순간 《꽝》 하는 폭발이 일어났다.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달려갔을 때 그 병사는 가슴에 손을 얹은채 숨을 거둔 뒤였다. 지휘관이 떨리는 손으로 피흐르는 그의 가슴을 헤쳤을 때 그의 군복주머니에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쓴 한장의 편지가 있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제대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한시바삐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고싶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대를 떠나겠습니까. 불길을 열어놓은 그날 가슴펴고 떳떳이 어머니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는 군인건설자들의 눈가에서 소리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병사들은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관철을 위해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수천m의 물길굴을 피끓는 심장으로 열어나갔다.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당시)의 로동계급은 당이 제시한 전기기관차생산, 수리목표를 돌파하였고 당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받들고 평양시와 황해남도,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전투장으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련일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하여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훌륭히 전변시켰다. 대안친선유리공장과 백마-철산물길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라남의 봉화에 이어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고 희천속도가 창조되여 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쳐 돌진하는 주체조선의 위용이 힘있게 떨쳐졌다.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킨 대계도간석지 3호방조제마감막이공사는 간석지건설력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역경을 돌반한 영웅적절사전이였다.

좁은 물목으로 밀물과 썰물때마다 한번에 수억t의 엄청난 바다물이 초당 7~8m의 속도로 드나들었다. 세찬 물살은 무게가 여러t 되는 돌묶음과 대형부재들도 순간에 집어삼켰다. 그 자연의 광란으로 초기에 350m였던 마감막이구간이 450m로 늘어났고 바닥은 수십m나 깊이 패였다.

하지만 간석지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불굴의 신념을 안고 세계간석지건설력사에 없었던 우리 식의 새로운 공법들을 련이어 창조하여 3호방조제를 기어이 막아내고야말았다.

완공된 대계도간석지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제는 인민군대에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당의 훌륭한 구호가 나왔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이룩을 창출한 외국의 한 인사는 그처럼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를 기계수단과 연유를 비롯하여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완공한것이 너무도 놀라와 이렇게 물었다.

《무슨 힘으로 제방을 쌓을수 있었는가?》

《주체사상으로 쌓았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인데 그 뜻은 사람의 힘, 사상의 힘을 당할자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3호방조제마감막이공사를 할 때 외국의 한 간석지건설전문가는 말의 인력을 차단하여 밀물과 썰물을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저 방조제를 막을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우리는 기어이 해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정밀한 로동자의 이 대답은 또 한번 큰 충격을 주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의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불멸의 기적을 창조하였고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로동계급은 함남의 불길높이 새로운 비날론섬유생산기지와 비료생산공정을 련이어 일떠세웠다.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온넋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아오신 CNC화의 자랑찬 현실과 더불어 첨단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졌다.

언젠가 외국의 한 정치가는 《조선은 정신력의 강국이다. 그 어떤 대국도 이 나라를 정복할수는 없다.》고 확신성있게 단언하였다.

위대한 수령은 위대한 인민을 낳고 위대한 인민은 위대한 기적을 낳는다.

천만군민을 위대한 시대정신의 창조자, 정신력의 최강자로!

바로 여기에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놓으시고 그처럼 간고했던 시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이 있다.

력사에 류례없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의 토대를 굳건히 다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또다시 일떠섰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본사기자 조 경 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일 리상홍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뜨거운 민족애, 동포애로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가꾸어주시고 총련의 대, 애국의 대가 꿋꿋이 이어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림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숭엄한 마음안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표단성원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과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기네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와 씨쎄 쌀룬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사이의 회담이 7월 31일에 진행되였다.

석상에서 씨쎄 쌀룬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위원장인 알파 폰데 기네공화국 대통령이 보내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표단 단장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은 기네무지개인민련합이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해주고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는 조선은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다고 하면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림장을 표명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 기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전국조정자와 상임비서를 비롯한 당 전국정치국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대표가 베네수엘라대통령인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위원장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대표로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제4차대회에 참가한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리승길동지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인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위원장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위원장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가 정중히 전하였다.

니꼴라스 마두로 모로스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대회에 당대표를 파견하여 축하하도록 하여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표에게 부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공식방문하기 위하여 출발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싱가포르공화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을 공식방문하기 위하여 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리용호동지는 공식방문에 앞서 싱가포르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와 콘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싸메그 케메르베이씨 이란이슬람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 개막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축구, 롱구, 배구, 탁구, 태권도, 예술체조, 수영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로 나뉘여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는 각지 대학들에서 선발된 2 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

개막식이 2일 함흥시에서 있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양명규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장룡길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대학생들을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민족간부후비로 준비시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생들속에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체육경기를 널리 조직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체육강국건설을 위해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대학생들이 앞장에 서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이번 경기대회가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방침을 받들고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여 련마해온 육체기술적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선수들이 경기마다에서 높은 체육기술과 고상한 경기도덕풍성, 집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둘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온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예방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례년에 보기 드문 고온현상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세계기상기구는 지구의 북반구에서 7월 중순이후 기록적인 고온을 동반하는 이상기후현상이 지속되고있는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7월 12일부터 장마중단기에 들어서면서 동해안중부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7월 하순부터는 대부분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5℃이상으로 높아져 그 정도와 지속기일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기상관측이래 가장 심한 고온현상을 기록하고있다.

이러한 고온환경조건의 피해를 받아 체온조절기능장애로 인한 신체장애증상이 나타나는것을 열사병 또는 일사병이라고 한다.

열사병의 원인이 높은 기온과 센 복사열이라면 일사병은 내려쪼이는 해빛아래 오래동안 있거나 밀폐된 곳에서 센 열복사를 받으며 아무러한 보호대책도 세우지 않을 때 생긴다.

일반적으로 기온과 복사열이 피부온도보다 높을 때에는 전도, 대류, 복사의 형태로 몸안에 축적된 열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며 폐와 피부에서 물기를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열을 내보내게 된다.

그러나 기온이 35℃에 이르면 땀의 증발이 최고에 이르러도 열을 미처 내보내지 못하므로 몸안에 과잉의 열이 축적되여 체온이 오르면서 열사병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뇌수조직에까지 침투된 해빛의 센 온열자극은 뇌막과 뇌수조직의 충혈을 일으키며 일사병을 일으킨다.

열사병과 일사병은 다같이 의식장애와 정신장애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병들이 생기면 온몸이 나른한감, 머리아픔, 어지러움, 눈앞이 캄캄해지는감과 귀울이현상 등이 나타난다.

피부는 충혈되고 열이 있으며 땀이 나고 체온은 38-39℃로 높아지며 맥박과 호흡이 빨라진다. 또한 허탈, 걸기장애, 얼굴창백, 언어장애와 의식장애가 나타나며 근육경련과 환각, 망상 등 정신장애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이례적으로 지속되고있는 고온현상은 8월 5일경까지도 이어질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므로 고온과 무더위현상이 계속되는 이 기간에 건강관리를 잘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자면 낮에 직사광선을 받는것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거나 챙양이 큰 모자를 쓰는것이 좋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것을 피하고 휴식과 로동을 적절히 배합하며 짠수와 염류상실을 막기 위해 오이랭국같은것을 많이 마시는것이 좋다.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서늘한 치료실에 환자를 옮기고 미온욕(26-27℃)을 5-6분동안 시키고 침대에서 15-20분동안 안정시킨다. 또는 수건을 25-26℃의 물에 적셔 10-15분동안 몸을 감싸주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열을 흡수시켜야 한다. 일사병일 때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그늘이 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환자를 옮기고 알콜이나 찬물로 온몸을 닦거나 씻는다.

고온현상으로 인한 피해증상이 오면 제때에 병원이나 진료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을 찾아가 의료상방조를 받아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리 수 민

민족체육발전을 추동해갈 드높은 열의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를 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태권도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무술의 한 형식이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좋은 체육종목입니다.》

지난 7월말 태권도전당에서는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가 태권도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는 태권도경기와 바둑경기로 나뉘어 진행되였다.

태권도경기에서는 개인맞서기와 단체맞서기경기를 진행하였다. 개인맞서기경기에는 전국의 태권도 1급선수들이 참가하여 중량급, 중경량급, 경량급으로 나뉘어 경기를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다음 해당 몸무게급에서 1등과 2등을 한 선수들이 몸무게급에는 관계없는 경기를 진행하여 누가 태권도맞서기강자인가를 결정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개인맞서기경기는 태권도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의 림위석선수와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의 하금광선수와의 남자개인맞서기결승경기는 관람자들의 눈길을 더욱 끌었다.

그도그럴것이 림위석선수와 하금광선수는 중경량급경기에서 1, 2등을 한 선수들로서 몸무게가 별반 차이가 없고 맞서기기술이 대단히 높으며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전적을 가지고있었다. 하여 경기는 매우 치렬하였다.

림위석선수는 불의공격에 의한 반라격전술을 적극 살리면서 경기를 진행해나갔고 하금광선수는 선제공격위주의 전술을 활용해나갔다. 두 선수의 육체, 기술적상태가 좋은것으로 하여 경기는 연장전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경기에서는 림위석선수가 이겨 남자개인맞서기에서 강자가 되였다.

녀자개인맞서기경기도 태권도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의 박미향선수와 황해남도태권도선수단의 박설향선수사이에 진행된 결승경기는 매우 치렬하였다.

중량급경기에서 1등을 한 박미향선수는 태권도세계선수권을 보유한 전적이 있는 선수였다. 한편 경량급에서 2등을 한 박설향선수는 나이가 어린 선수였다. 두 선수의 몸무게에서 큰 차이가 있었지만 박설향선수는 이악하게 경기를 진행하였다. 그가 기만에 의한 뛰여돌며차기를 비롯한 높은 기술동작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중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경기에서는 박미향선수가 이김으로써 녀자개인맞서기강자가 되였다.

단체맞서기경기는 매 림에서 후보선수를 포함한 6명의 선수들이 몸무게에 관계없이 승부를 겨루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남자단체맞서기경기에서는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이 1등을,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이 2등을, 평안북도태권도선수단과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이 3등을 쟁취하였다.

녀자단체맞서기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이 1등을,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이 2등을, 황해남도태권도선수단과 강원도태권도선수단이 3등을 쟁취하였다.

바둑개인경기에서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의 남, 녀선수들이, 바둑혼성복식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이, 바둑남자복식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이, 바둑녀자복식경기에서는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이, 바둑단체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우리와 만난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의 박미향선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훈련을 더 잘하여 민족의 정통무도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이겠습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니라 경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하나와 같은 심정이였다.

이번 경기대회는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나날이 높아가는 민족체육수준을 잘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였다.

본사기자 주 령 봉

특색있는 경제선동활동 힘있게 전개

함경북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는 함경북도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어려 중앙기관과 함경북도의 직외강연강사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극창작단 예술인들, 도당위원회 일군들과 도예술단 성원들이 대고조전투로 불끓는 각 시, 군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다양하고 특색있는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정중히 드린 어려 중앙기관의 직외강연강사들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극창작단 예술인들은 즉시 각 시, 군들에 나가 혁명사적관부터 먼저 참관하였다. 이 과정에 자신들부터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총정다해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진 그들은 경제선동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조국의 최북단에서부터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곳마다에서 직외강연강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출위인상을 격조높이 이야기함으로써 대중의 심장마다에 애국충정의 불길을 활화산처럼 지펴올리고있다.

경흥군과 경원군에서 경제선동의 첫 북소리를 울린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극창작단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참신한 경제선동활동으로 그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고있다.

천북이와 만길이, 돌돌이와 삼녀역을 맡아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예술인들의 공연활동은 생활과 투쟁의 교훈을 해학적으로 보여주며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텔레비존극들에서 주요배역을 맡은 예술인들은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간직된 명자들의 뜻깊은 대사들과 감동적인 연기들을 재현하면서 모두가 그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재담과 독연, 독창과 중창 등 다양한 종목들에 출연한 예술인들도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고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각 시, 군 공장, 기업소마다에서 창조되고있는 성과들과 로력혁신자들을 기동성있게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경제선동활동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도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짜고들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고있다.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직외강연강사들의 강연과 어려 단체 예술인들의 경제선동활동을 보면서 어깨춤바다를 펼치고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말씀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굳은 결의를 다지며 신심과 랑만에 넘쳐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어려 중앙기관과 함경북도의 직외강연강사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극창작단 예술인들, 함경북도당위원회 일군들과 도예술단 성원들은 청진가방공장진열장과 염분전호텔전실장, 어랑천발전소전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에로 경제선동의 길을 계속 힘차게 이어가면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순성

잣접림에 바쳐진 애국의 마음

리원군산림경영소에서

리원군산림경영소에서 지난 기간 소나무림을 잣나무림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잣접림면적을 더욱 늘이였다. 그리하여 군적으로 잣접림면적은 백수십정보에 이르러 해마다 많은 잣을 따들이고있다.

주체97(2008)년 8월 리원군산림경영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성한 잣나무림을 보시고 잣을 소나무에 접하는 방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나갈 애국의 마음안고 군산림경영소에서는 군안의 소나무림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잣나무림으로 개조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웠다. 이와 함께 생장상태가 좋은 잣나무림을 채종림으로 정하고 그 비배관리에 힘을 넣는 한편 기능공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기능공들에 대한 기술전습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빈틈없는 준비밑에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마다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군산림경영소에서는 잣접림조성계획을 지난 시기에 비해 더 높이 세우고 잣접림면적을 더욱 늘이였다. 이와 함께 잣접가지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접기술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소나무림을 잣접림으로 만들기 위한 새 기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산림경영소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잣접림조성에서 일대 비약을 가져올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 경 철

철산봉의 숨결을 안고 기세좋게 달린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대형자동차 702호를 타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터와 나의 기대, 나의 제품을 보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웨치는 심장의 구호입니다.》

철산봉의 산허리를 도간도간 끊으며 층층이 계단을 이룬 채굴장들과 그것들을 서로 련결시키면서 여러 과채장들로 흘흘이 뻗어간 수송로를 따라 매일 기세좋게 달리는것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대형자동차들이다.

우리가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운광사업소 7운광직장에 도착하여 로력혁신자운전사들 만나보고싶다고 하니 사업소의 한 일군이 대뜸 대형자동차 702호를 타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 차에 올라 쇠돌운반로정을 같이 달리며 초소장 박영백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는것이였다.

일군의 말에 의하면 대형자동차 702호의 운전사들이 지난해에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6월말까지 앞당겨 수행하였는데 그 차의 《나이》가 거의 30년이 되여온다고 한다.

우리는 대형자동차 702호에 올라 차를 운전하는 초소장의 곁에 앉았다.

운전칸안을 둘러보는 우리의 눈앞에 제일먼저 안겨온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아주신 대형자동차》라는 글이 새겨진 표식판이였다.

우리는 차판리를 어떻게 잘할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구태여 묻지 않았다. 그에 대한 설명은 운전칸안에 붙어있는 3중26호모범기대표식과 년간 쇠돌운반정형을 보여주는 실적표, 주간정비계획표, 차판리분담표가 다 말해주고있었다.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자면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이 차를 자기 눈동자처럼 애호관리해야 한다고 우리 차의 선배운전사들이 늘 말해주군 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초소장은 3호대형원추형과채장으로 기세좋게 차를 몰아갔다.

그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더 높이 더 빨리》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

차바퀴 한개의 무게만 하여도 1t이 넘는 대형자동차의 고르로운 동음이 마치도 그의 노래를 반주하는것처럼 느껴졌다. 아주 기막힌 안삼불이였다.

702호는 얼마후 3호대형원추형과채장에 도착하여 쇠돌을 부리우고 다시 질풍같이 대형굴착기가 있는 곳으로 달렸다.

새로운 쇠돌증산목표점령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철산봉의 숨결을 안고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자랑찬 위훈의 자욱을 끝없이 새기며 대형자동차는 더욱 기세좋게 내달렸다.

본사기자 백 성 근

자체의 약초원료기지를 꾸려놓은 보람

북창고려약공장에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북창고려약공장에서 군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고려약생산을 늘이고있다.

종업원도 얼마 안되고 규모도 크지 않은 이 단위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의 비결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만난 박승현지배인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면서 고려약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지를 꾸리면 이야기부터 펼치였다.

나날이 더해만 가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높은 고려약생산성과로 받들어갈 방도를 모색하던 지배인은 군마다 자체의 튼튼한 약초원료기지를 조성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였다.

(그렇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자면 무엇보다도 자체의 약초밭을 더 많이 조성하여 원료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80여정보의 약초밭과 약나무림을 조성하려는 그의 결심을 군의 책임일군들은 적극 지지하면서 필요한 대책들도 세워주었다.

사실 파만수가 녀성들인 엄마인데 종업원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길임을 마음속깊이 새겨안고 앞재를 넘은 지배인의 뒤를 따라 종업원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난해 공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상리 근물에서는 불과 십여명의 종업원들로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잡관목들을 베고 땅을 갈아엎다싶이 하면서 잔뿌리들을 말끔히 들추어냈다. 약초를 심을수 있게 금을 들여 드넓은 산만을 한치한치 정리해나갔다.

전투과정에 제일 어려운것은 산지양묘장조성이였다. 약나무묘목을 튼튼하게 키우자면 무엇보다도 질좋은 거름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했다. 종업원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정보당 수십t의 거름을 보장하기 위한 씨야전투를 벌리였다. 무거운 거름짐을 지고 앞장에서 산길을 오르는 지배인과 종업원들의 작업복은 순간에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그러나 공장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며 모두가 힘을 백배했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거름을 묻으며 양묘장의 모판을 규모있게 꾸려나갔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지배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파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 심여명의 종업원들로 그렇듯 방대한 원료기지를 조성할수 있었는지 선뜻 믿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켜선 고려약생산초소에서 인민들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길이라는 자각이 기적을 안아왔습니다.》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은 그대로 알찬 열매를 맺었다. 자체의 힘으로 조성한 30여정보의 약초밭과 50여정보의 약나무림은 그대로 원료걱정을 모르고 고려약생산을 내밀수 있는 비약의 담보로 되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 성과에 토대하여 고려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었다.

인민들이 즐겨찾는 효능높은 고려약을 만드는데서 난문제는 질좋은 엑스성분을 추출해내는것이였다.

지배인이 직접 진공추출농축기설계를 맡아나섰다. 지난 시기 리용하던 설비를 하나하나 분해하여 구조적특성을 연구하였고 앞선 단위들을 찾아 걷고 걷으며 공장실정에 맞게 설비를 실리있게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끝내 설계를 완성한 지배인은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설비제작전투에로 불러일으켰다.

결과 공장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질좋은 엑스를 얻어내여 효능높은 고려약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는 일군의 모습은 생산자대중의 마음속에 자력갱생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주는 충풍기적역할을 하였다.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열효률을 높일수 있는 새 무등력보이라를 제작도입한것을 비롯하여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최근년간 보다 튼튼히 다져져 고려약생산에서는 전례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실지체험을 통하여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안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공장현대화를 위한 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 폐막

지난 7월 30일에 개막되였던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가 폐막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선구자, 개척자가 될 야심만만한 포부를 안고 학습과 과학탐구의 열풍속에 연구완성한 가치있는 론문들이 심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교원대학교육을 중시하여 훌륭한 교육자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한 사상과 그 정당성에 대한 연구》, 《도시고제생활오물의 선별 및 처리공정》, 《이동식강냉이종합탈곡기에 대한 연구》 등의 론문들은 우리 당의 교육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있게 해설론증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경남도가 특등을, 평안북도와 평안남도가 각각 1등을 하였다.

발표회기간 해당 전공부문의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대한 강의와 다매체편집물시청도 있었다.

폐막식이 2일 청성공업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순덕동지, 평안남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차병은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군들,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생들에게 표창장,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배충일동지가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발표회가 대학생들을 숭고한 정신과 세계를 앞서나가는 지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 창조형의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대학생들이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런 인간생명의 기사들이 우리의 보건제도를 지켜서있다

합경남도인민병원 복부외과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함경남도인민병원에서 최근 인간사랑의 기적이 또다시 태여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지난 7월 6일은 함경남도인민병원 복부외과 의료일군들에게 있어서 결코 례사로운 날이 아니였다. 바로 이날에 혁명과업수행중 뜻밖의 일로 사경에 처했던 북청군의 리용학동무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던것이다.

만사람의 뜨거운 축복을 받으며 병원을 나서는 리용학동무의 눈가에도, 그를 둘러싸고 밝은 미소를 짓고있는 의사, 간호원들의 눈가에도 맑은것이 한껏 고여올랐다.

이것은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에서만이 태여날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화폭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지난 5월 의식을 잃은채로 함경남도인민병원 복부외과로 실려온 리용학동무가 총수천공성 범발성복막염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하여도 그가 다시 소생할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지속되여오던 엄중이 도저 온몸이 통통 부어올라 형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데다가 심히 오염된 장기들은 피사지전이였고 혈압과 맥박을 비롯한 모든 생명지표들도 거의나 멍상태였다.

뜻밖에 들이닥친 정황속에서 이곳 의료일군들은 한동안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과연 과자체의 힘으로 환자를 살려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때문이였다.

그때일을 돌이켜보며 홍창혁과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이지 수십년간의 림상경험을 돌이켜봐도 이런 환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함께 천리마시대 보건일군들이 지녔던 정성의 바통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과의료집단을 전례없는 소생전투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환자에게 필요한것은 그 무슨 약물이나 의술보다도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지극한 정성이다. 최중증환자를 키어이 소생시켜 우리 시대 보건일군의 본분을 다하자.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복부외과 의사, 간호원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이 절절한 호소가 북덩이처럼 이글거리고있었다.

최중증환자가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의 일군들도 달려왔다.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과장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으며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온 병원이 동무들을 지켜보고있소. 피면 피, 살이면 살 그 무엇이든 서슴없이 바칠 의료집단이 동무들과 함께 수술장에 서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환자를 무조건 살려냅시다.》

드디여 첫 수술이 진행되였다. 일반적으로 복부외과수술은 환자의 대부분이 구급환자들인것으로 하여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수술인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인체의 다른 장기들에 손상을 줄수 있는것으로 하여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이 글에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을 방불케 한 수술장에서의 분분초초가 어떻게 흘렀으며 이곳 의사, 간호원들이 어떤 사생결단으로 전투를 벌렸는지 다는 쓸수 없다.

다만 두시간만에 얼려지는 수술장문으로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여 나오면서도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짓던 의료일군들의 모습을 평생 잊을수 없다고 절절히 토로하던 리용학동무의 안해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술의 간고성과 격렬성을 그려보일뿐이다.

병원적인 판심사로 진행된 수술로 위험한 고비는 넘어섰지만 환자는 며칠째 졸처럼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지속되는 고열과 심한 동통,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중독증상, 더우기 분제로 되는것은 허약해진 환자의 몰상태로는 다시 수술을 하기 어렵다는것이였다.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결심태때이 매우 중요했다. 인간의 생명이 한순간에 결정될수 있는 이때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라면 0.1%의 가능성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것이 바로 의사의 결심태때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일군이라면 누구나 종종 부닥치게 되는 이런 정황앞에서 홍창혁과장은 다시한번 자신을 가다듬었다.

그의 눈앞에 불현듯 방금전에 보았던 모습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선생님, 용학동무를 꼭 살려주십시오. 우린 의사선생님을 믿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을 믿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부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절히 탕부하던 그 목소리들이 그의 심장을 세차게 파고들었다.

(우리 의사들을 믿는다는것은 곧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믿는다는것이 아닌가. …)

이날 진행된 협의회에서 과장의 웅글진 목소리가 과의료일군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렸다.

《인간생명의 기사들인 우리가 저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에 단 한점의 실망이라도 안겨준다면 그것은 곧 존엄높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영상을 흐려놓는것이나 같습니다. 환자의 생명은 우리가 전적으로 당일에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리용학동무의 치료를 수술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수술창을 통한 능양배농법으로 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후날 리용학동무의 담당의사였던 고충길동무는 우리에게 그때야말로 더는 물러설 길도, 주저앉을 자리도 없이 오직 앞으로만 나가야 하는 화선병사가 된 심정이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전시도 아닌 평화시기에 화선병사의 모습으로 정법한 인간의 생명을 지켜 이들이 내린 결심이야말로 단순한 의학적선택이기 전에 우리 시대 참된 보건일군의 신념과 의지가 가리킨 방심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강조하고싶다. 이렇게 치료전투의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드디여 수술이 진행된지 5일째 되던 날 담당간호원 김화경동무의 맑은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들려왔다.

《과장선생님, 환자가 의식을 차렸습니다.》

의료일군들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정성속에 의식을 차린 리용학동무의 망막에 비껴든것은 일가친척들이 아니라 하얀 위생복을 입은 의료일군들의 땀젖은 모습이였다.

그 시각 리용학동무는 다는 알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자기곁에서 밤을 지새웠고 얼마나 많은 귀중한 약물들이 자기 몸에 흘러들었는지, 어떤 고마운 손길들에 떠받들려 소생하게 되였는지.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했다. 그것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은혜로운 손길이 꺼져가는 자기 생명을 구원해주고 보살펴주고 있었다는것이였다.

리용학동무의 눈가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이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난 기쁨의 눈물이기 전에 멎어가는 자신의 심장에 박동을 더해주고 생의 희열을 안겨준 잊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였고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였다.

리용학동무가 함경남도인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40여일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가운데서 한가지 사실만을 더 이야기하려고 한다.

리용학동무는 의식을 회복한 초기에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인데다가 입맛까지 잃다보니 의사, 간호원들의 진정이 담긴 새다른 음식들도 그의 입맛을 돋궈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하여 간호원 김화경동무가 남몰래 눈물을 흘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던 어느날 홍창혁과장이 김화경동무에게 귀띔해주었다. 풋고추와 돼지비계를 잘게 썰어넣은 토장국을 리용학동무가 제일 좋아한다고.

고향집에서 맛보던 얼벌벌한 토장국을 받아안고 리용학동무는 한동안 어리둥절해졌다.

《어서 드세요. 얼른 몸을 추세워야 병치료도 잘된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김화경동무가 한술두술 떠넣어주는 토장국을 리용학동무는 눈물과 함께 삼켰다.

후에 안 일이지만 홍창혁과장은 리용학동무가 토장국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그의 안해의 이야기를 무심히 듣지 않고 새겨두었던것이였다.

사실 토장국은 어디서나 흔히 맛볼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뜨거운 인간사랑의 무게, 정성의 무게가 담겨져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혈육의 정과 사랑속에서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리용학동무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혁명초소에 서게 되였던것이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환자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면 이 세상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것을 함경남도인민병원 복부외과 의료일군들은 자신들이 지닌 멸사복무정신과 무한한 헌신으로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오늘도 이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한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켜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들의 투쟁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과 같이 당대에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령도자는 동서고금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옳바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지침으로 삼을만 한 지도사상과 투쟁방법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놓인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실천을 통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피압박근로대중의 행복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는것을 깨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의 선포였으며 지구상 모든 제국주의와의 대결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6월에 열린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전대와 열시속에 신음하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가 도래하였다는것을 밝히시고 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며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세계식민지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신데 이어 무장한 적들과는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을 깊이있게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해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 전기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것, 이것은 세계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였다. 이 근본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40여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안아온 항일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나라의 해방은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나라의 해방은 식민지로 있던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민족해방과 독립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족적독립을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세계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민족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며 이 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운동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여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으로 규정되고 자주시대를 떠밀어나가는 혁명력량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성격, 투쟁대상과 동력, 혁명력량의 편성과 투쟁형태, 그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 등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해주시였을뿐아니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새게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을 만나시여 그들에게 신심과 고무적힘을 안겨주시였다.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국제주의적의리의 세계는 모잠비끄민족해방투쟁사에도 비껴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잠비끄민족해방투쟁의 앞길에 여러가지 난관이 조성되였다. 그 출로를 찾기 위해 모대기던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 겸 해방인민군 총사령관 사모라 모이세스 마셸은 두차례의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1971년 9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셸을 친히 만나주시고 적들이 악랄하게 나올수록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에서 몸소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도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며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조국으로 돌아간 마셸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해방전선의 내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원시림속에 비밀유격근거지들을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들을 족쳐댐으로써 싸움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였다. 수백년간에 걸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한 력사적인 사변을 선포하는 대회의 연단에서 마셸은 위대한 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앞길을 가르쳐주시였기때문에 우리는 조상들과 우리의 발목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마음까지 합쳐 그이께 감사를 드리자고 격정을 터쳤다.

독립을 이룩하고 초대대통령이 된 마셸은 모잠비끄혁명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언제나 잊지 않고 그이의 카르치심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 그는 수도 마푸토시내의 제일 아름다운 거리를 김일성거리로 명명하게 하였다.

정녕 세계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해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자주위업의 앞길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정 원 준

평화기류에 역행하는 도발행위

조선반도를 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 평화와 안정, 화해의 기류가 잠들고있는 때에 그와 배치되게 놀아대는 나라가 있다. 바다건너 섬나라 일본이다.

일본방위성이 2019회계년도 군사비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작성단계에 들어갔다. 또한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여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구상》에 기초한 해상에서의 다국적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이 모든것은 조선으로부터의 《절박한 위협》이라는 명목밑에 공공연히 강행되고있다.

우리의 평화애호의지와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평화의 기류에 역행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이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여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불과하다.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기술적인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공고한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화해와 판게개선의 분위기가 더욱 확대되기를 고대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지배층은 그에 정면도전해나서고있다.

조선반도정세악화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것은 일본의 체질적인 악습이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반도에 대결국면을 계속 조성하여 군국주의마차가 거침없이 질주할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군사비문제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본의 군사비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히 지독한 군국주의자인 아베가 집권한 때부터 군사비는 해마다 그 전해의 기록들을 갱신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자민당은 군사비문제와 관련한 제언서라는데서 《나토가 방위비의 목표로 삼고있는 국내총생산액의 2%수준달성을 참고로 삼으면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1%수준미만으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고 한 아베의 립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고있다.

《도꾜신붕》은 1970년대 일본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1%수준미만으로 한다는 틀거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기 나까소네내각은 이것을 철폐하였다. 지금에 와서 아베내각은 군사비를 배로 늘구려 하고있다, 다용도운용모함과 여기에 《F-35B》전투기 등도 탑재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항공모함도입구상이다, 《적기지공격능력》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장거리미싸일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있다고 하면서 현 정부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까밝혔다.

최근에 일본은 미국의 록키드 마틴회사로부터 수십억US$규모의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이미 군국주의국가로서의 면모를 거의 다 갖추었다. 《자위대》는 정규무력처럼 모든 군종, 병종을 가지고있으며 선제공격능력도 보유하였다. 일본《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는 태평양은 물론 인디아양으로까지 확대되고있다. 헌행헌법만이 장애물로 남아있다. 아베집권세력은 이것마저 개악하여 자기 나라를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 광분하고있다.

사실들은 일본이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둔갑하려고 얼마나 모지름을 쓰고있는가를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주변나라들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을 놓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른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불순한 재침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조선반도에 조성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저들의 운명을 망칠수 있다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일본연구소 연구원 라 명 성

남조선단체들
종전선언채택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4개 종교단체들이 7월 26일 대전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종전선언채택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우리 겨레가 70여년을 전쟁의 공포와 분렬의 아픔속에 살아왔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쳐 4.27판문점선언을 리행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어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을 통하여 그들은 조선반도가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채 반세기가 넘게 전쟁불안상태에 놓여있다고 개탄하면서 더이상 랭전시대가 아닌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첫걸음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채택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4.27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이 리행되여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호상신뢰에 기초한 관계정상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같은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성명은 정전협정의 체결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의 선언이였다고 하면서 최악의 인명피해와 민족의 재난을 가져다준 동족상쟁의 비극이 또다시 일어날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체결로 가는 첫 단계이지만 파기에 사로잡혀 아무런 진전도 이룩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종전선언을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폐청산과 민주, 인권, 평화실현을 위해 투쟁할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유신》독재자의 《긴급조치》에 의해 피해입은 사람들이 7월 24일 서울 중구에서 《민주, 인권, 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을 결성하였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는 리명박, 박근혜《정부》하에서 광승대가 대법원 원장을 하고있을 때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던 법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거사정리는 《정권》이 자기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을 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사회적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그날의 불법적인 판결들을 바로잡아 《유신》독재자의 《긴급조치》에 조력한 죄악을 반성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어 선언문이 랑독되였다.

선언문은 《유신》과 보수의 망령이 아직도 주변을 배회하고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긴급조치》에 의해 피해입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사법통락의 피해까지 입은것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선언문은 강조하였다. 선언문은 보수팽전의 유령이 군과 권력기관에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며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계의 령역에도 존재하고있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여야정치권과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고 명예회복조치 및 배상이 즉시 실현될수 있게 응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전 《정권》하에서 사법통락에 의해 잘못 내려진 과거사와 관련한 모든 판결은 전면 무효라고 선언문은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날날이 드러난 살인마들의 흉계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패당의 군사쿠데타계획음모가 추가로 폭로되면서 사회 각계가 더 큰 충격과 분노로 끓어번지고있다.

얼마전 박근혜집권시기 기무사령무에 의해 작성되였던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문건이 공개되였다. 문건은 《단계별대응계획》과 《위수령》, 《계엄령》선포, 《계엄시행》 등 4개 조에 21개 항으로 되여있다.

최근시기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박근혜패당의 군사쿠데타계획음모가 적지 않게 폭로되였다. 박근혜역도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 땅크와 장갑차, 특수전병력을 비롯한 수많은 무력을 서울시내에 투입하여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것도 바로 얼마전의 일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박근혜패당의 군사쿠데타계획음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날날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그에 의하면 기무사령부패거리들은 《계엄령》선포이후 《계엄사령부》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할데 대한 문제와 《계엄군》의 임무수행조건보장을 위한 각종 공문들, 《계엄령》선포시 각 기관들에 대한 통제망안 등을 통해 《계엄령》실행계획들을 주도세밀하게 세웠다.

이로써 이번 군사쿠데타계획은 단순히 만일의 상황을 가상한 《대비계획》이 아니라 박근혜패당이 군부우두머리들과 작당하여 집권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위험천만한 범죄이라는것이 더욱더 명백히 드러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령부지들은 《비상계엄령선포문》과 《계엄포고령》, 《대국민담화문》, 각 언론사들에 보낼 《사전검열공문》과 같은 문서들도 이미전에 작성하여놓았다. 또한 거기에는 그 무슨 《질서유지》의 미명하에 대규모의 무력을 투입할 장소, 야간통행금지와 대학휴교실시 등 각종 특압계획들도 들어있었다. 뿐만아니라 9개의 《보도검열단》이라는것을 조직하여 신문, 방송, 통신원고와 영상제작물들을 사전검열하며 부득이한 경우 1개의 방송만 남겨두고 모든 언론사들 강제폐간시킬 계획, 《불온내용색출》을 구실로 인터네트사회교제망을 폐쇄하는것과 거기에 동원할 《인터네트류언비어대응반》의 조직 등 언론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드러나있다.

《국회》장악계획도 있다. 기무사령부패거리들은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들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한데 기초하여 《국회》청사주변에 1개 려단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진보정당소속 의원들의 모든 정치활동을 차단하며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 성원들에 대한 집중검거를 감행할 흉계를 꾸미였다. 지어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의 처리를 가로막기 위한 살벌한 계획도 꾸미였다.

이뿐이 아니다. 나중에는 군부우두머리들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를 만나 《계엄령》선포에 대한 승인과 지원을 요청하고 외신기자들이 폭압현장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자갈을 물리는 방안까지 미리 작성해놓았다.

이밖에도 문건에는 남조선군부가 《비상대책회의》라는것을 열고 《계엄령》의 시행을 결정하며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를 선포하도록 하는 문제, 경찰과 헌병, 정보원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정보, 수사기관들을 《계엄사령관》이 장악통제하는 문제 등 《계엄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군정》실시와 관련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여있다.

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이번에 폭로된 군사쿠데타계획은 그야말로 박정희역도의 5.16군사쿠데타와 전두환군사깡패무리의 12.12숙군쿠데타, 광주대학살만행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극악무도한 대량살륙계획이였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군사쿠데타계획이 실행되였더라면 1980년 5월 광주사태때처럼 무리죽음이 나고 온 남녘땅이 피바다에 잠겼을것이라고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민주개혁정당들과 각계층은 《가슴이 섬찍하다.》,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다.》, 《초불집회에 참가했던 나도 체포될번 했다.》고 하면서 《문건대로라면 박근혜는 청와대에,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감옥으로 갔을것》이라고 격분을 터치고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끔찍한 대학살계획작성을 지시했는가, 황교안은 물론 박근혜도 무조건 수사해야 한다, 쿠데타음모에 가담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라고 강력히 들이대고있다. 그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집권기간 인민들을 개, 돼지나 같은 짐승으로 취급하면서 온갖 못된짓을 일삼다 못해 치떨리는 군사쿠데타음모까지 꾸미며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해온 보수패당은 이제 더이상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게 되였다.

특히 시종일관 박근혜《정권》의 들러리가 되여 모든 과쇼적음모에 가담한 공범자들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패거리들인 경우 더욱 그렇다. 이자들에게는 저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 내막을 털어놓으며 스스로 법정에 나서는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지금 군사쿠데타계획음모가 드러난데 대한 보수패당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자들은 인민들앞에 꿇어앉아 뉘우쳐도 죄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어 문건내용의 공개시기가 더 의심이 간다느니, 정치적속임수라느니, 군내부문건이 루출되는데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느니 하고 으르렁대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범죄자들을 비호두둔하고 격노한 민심을 딴데로 돌려보려는 보수패당의 파렴치하고 교활한 술책은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다.

남조선을 피의 목욕탕, 인간도살장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극악한 살인마들은 마땅히 력사의 교수대에 끌어내여 사정없이 징벌해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더러운 권력을 부지하기 위해 무서운 대량살륙흉계를 꾸민 박근혜역도와 기무사령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범죄적정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더욱 적극 떨쳐나설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특등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징벌

죄와 벌은 한줄기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다.

최근 박근혜역도가 집권기간에 저지른 오만가지 죄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는것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얼마전 박근혜역도는 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6년형과 이전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범죄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았다. 결국 최대의 《국정》롱락사건으로 이미 징역 24년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것까지 합치면 역도가 지게 될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박근혜역도에게 차례진 중형은 집권기간 내내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은데 대한 력사의 응당한 징벌이다.

하다면 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그것은 박근혜역도와 그 일당이 정보원으로부터 수백만US$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저들의 반역통치를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탕진한 사건이다.

박근혜역도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보원으로부터 360만US$에 달하는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이 돈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리재만의 개인금고에 보관되여 역도의 주택관리비용과 의상실유지비용 등 여러가지 명목의 사적용도에 마구 랑진되였으며 나중에는 졸개들에게 던져주는 《격려금》으로까지 리용되였다.

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것은 지난해부터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박근혜역도는 청와대에 들고앉아 졸개들과 짝자꿍이 하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주머니를 불구는 등 저들의 내부를 부패서식장으로 완전히 전락시켰다. 수사과정에 역도의 측근인 최경환이라는자가 정보원으로부터 10만US$의 뇌물을 처먹은 사실과 함께 이자가 정보원에 박근혜년에게 매달 섬겨바치는 5만US$의 특수활동비액수를 10만US$로 늘이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도 날날이 드러났다. 박근혜일당의 이러한 부정부패행위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뒤뒤에 무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박근혜의 본새를 그대로 닮은 숱한 졸개들이 인민들의 혈세로 제배를 불리다가 결국 역도와 함께 줄줄이 감옥행을 하게 되였다.

이번에 유죄로 판결된 박근혜역도의 공천개입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일명 《비박계죽이기》, 《공천학살》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지난 20대 남조선《국회》의원선거당시 박근혜역도가 반대파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을 악용하여 독판치기하면서 《새누리당》을 자기의 《사당》으로 전락시킨 사건이다.

선거에 개입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역도는 청와대 정무수석실것들을 동원하여 친박명단을 작성하고 측근인물들을 내세우기 위한 불법적인 여론조사놀음을 벌려놓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면서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에 범죄를 거듭하며 죄악의 산을 쌓아온 박근혜패당의 말로는 실로 비참하기 그지없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이번에 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에 대한 재판을 통하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환멸과 증오는 더욱 커가고있다. 지금까지 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사용내막이 비밀로 되여있다느니, 책임을 따질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사건건 방해해온자들이 바로 이 패거리들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이제 박근혜가 더 지게 될 형량은 얼마일가.》, 《계속 드러나는 범죄에 이어 정화적인 초불시위를 (계엄령)말로 대처할 음모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고 하면서 박근혜역도에게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을 비롯한 박근혜패당의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끝까지 밝혀내고 그 공범자들도 함께 심판대에 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보수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심판기운은 더욱 고조될것이다.

최 진 향

심각하게 제기되는 야생동물보호문제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잡지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실리였다.

이전에 인간의 활동이 야생동물의 수와 생활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였지만 동물들의 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어느 한 대학의 연구사들이 여러 대륙들에서 서식하는 62종의 야생포유동물에 대한 76개 항목의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야생포유동물의 야행성(동물들이 주로 밤에만 나다니며 활동하는 성질)이 이전보다 1.36배 높아졌다. 이 동물들은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그리고 어느 대륙에서 살든 또 서식지의 류형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인류활동의 영향을 받아 야행성이 강화되였다. 연구사들은 오랜 기간의 진화과정을 거쳐 굳어진 동물들의 습성이 야행성의 강화로 인해 달라질수 있다는것은 큰 우려가 아닐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연구결과는 산림자원의 람벌 등 인간의 활동들이 야생포유동물들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지구의 생태환경은 리기적목적만을 추구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때문에 심히 파괴되여가고있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지구온난화의 후과가 바로 인간의 활동때문이라는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있다.

무분별한 자연개발은 야생동물들의 생활환경과 습성에도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동물들은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사람들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습성을 바꾸고있는것이다.

인간활동에 의해 야생동물들의 종류와 수가 급격히 감소되는것도 하나의 큰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파충류, 새류, 량서류를 비롯한 동물들의 마리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민물고기종수는 76%나 감소되였다고 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종수는 약 2만 5 000종에 달하고있으며 2020년에 가서 야생동물의 3분의 2가 사라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그 주되는 원인은 기후변화와 산림람벌, 농경지개간 등 사람의 활동으로 생태환경이 심히 파괴된것과 련관되여있다.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있는것으로 하여 포유동물의 약 4분의 1이, 새류가운데서 평균 8종당 1종이, 량서류중 3분의 1이 멸종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실지 지난 20년동안에 유럽과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있던 메비둘기마리수가 25%나 줄어들었다.

야생동물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또 다른 원인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상아를 노린 밀렵행위로 해마다 수많은 코끼리가 죽고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만도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코끼리마리수가 거의 30%나 줄어들었다.

지구상의 서우들중 80%이상이 서식하고있는 남아프리카에서 2017년까지의 지난 10년동안에 밀렵자들에 의해 죽은 서우가 7 000여마리에 달하며 살아있는것들은 2만마리도 못된다고 한다. 지난해에만도 이 나라에서는 밀렵자들에 의해 1 028마리의 서우가 죽었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26년 전에 서우가 멸종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한세기전에 지구상에는 10만마리의 야생범이 서식하였는데 밀렵행위의 성행으로 그 수가 계속 줄어들어 2014년에는 3 200마리가 남았다. 야생동물밀렵행위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과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국제사회가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힘을 넣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관건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야생동물들이 멸종될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생태환경보호사업에 힘을 넣고있는 한편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박 진 향

열파와 가뭄피해

일본의 전국각지에서 지난 4월말부터 7월말까지 열파가 휩쓸어 5만 7 530여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중 125명이 목숨을 잃었다.

7월 30일에만도 사이다마현의 구마가야시에서 기온이 41.1℃까지 올랐다.

또한 카나다의 케베크주에서 6월 29일부터 휩쓴 열파로 7월 5일까지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50살-80살의 주민들이라 한다.

사망자가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주에 경보령이 내려졌다.

한편 스위스에 례년에 없는 가뭄이 들이닥쳤다.

7월 25일 이 나라 기상당국은 가뭄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강과 호수들의 수위가 최저수준에 이르고 토양의 수분이 다 빠져 풀과 나무가 시들어가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모든것이 바싹 말라버린데다 고온현상까지 나타나 산불발생위험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단죄

파라르외무성이 7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최근 이스라엘경찰들이 무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뛰여들어 팔레스티나인들을 마구 탄압하면 불에 24명을 체포해간데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폭력행위는 이슬람교도들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고의적인 술책이라고 까밝혔다.

성명은 또한 이스라엘이 《유태민족국가》법을 채택한것은 팔레스티나인들의 자결권을 빼앗는 인종주의적인 처사이라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인종차별행위를 중지시키고 팔레스티나의 성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213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판매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